일체가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 윤회라는 것에도 매이지 말라

☞ 21면에서 계속

고 본다면 모두가 작은 것 큰 것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모든 법칙에 의해서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법이 무아인데 어찌 윤회가 있겠습니까?" 이런다면 우린 움죽거리지도 말고 목석이 돼야죠. 물도 파도도 없고 흘러가는 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넉넉히 흘러가고 움죽거리고 자동적으로 아주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무아인 것입니다, 허허허.

그리고 참, 아까 어느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댔죠? 피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라고 그랬더라?

질문자1(남) 네, 성암 선사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나는 중생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겁 동안 해탈을 못 하고 생사에 머물며 인간과 천상, 사바세계와 피안의 세계에 갖가지 모습으로 출몰하고 부침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큰스님 그러니까 함이 없이 그 말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생전에, 몸 떨어지기 전에 알아야지 몸 떨어지고 난 뒤에 해탈을 하려면 해탈치 못합니다. 부딪침도 없고 더함도 덜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윤회에 매이지 말고 모든 착을 떠나서 그대로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대로 모두 하고들 계십니다. 그대로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모두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는 도리로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하나를 생각하면 꼭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 장난에 끄달리고 그러니까, 모두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입력이 돼서 바로 그게 악업 선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나가면서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듯이 우리는 그 어항 속에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안의 그 언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네 모습이 어떠하든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소리겠죠. 하여튼, 누가 하는 소리든 그냥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마음을 넓게 갖는다면 우주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공기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느냔 얘깁니다, 예?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 하고 얽매여서 그냥 고인 물에서만 헤매고 도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물리가 터져서 점프를 할 수 있는 능한 마음이 생겨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묘법이다. 마음이 묘하다. 마음이 악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선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점프를 해서 이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우주 세계를 한 찰나에 돌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마음을 가둬 놓고 있느냐.' 했습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한마음을 말하고, 전체, 안과 밖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즉,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기 이전 마음은 바로, 다스리는 마음의 선장입니다. 다스려야 할 선장! 잘못되고 잘된 걸 뻔히 아는 선장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 내는 것을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니까 '요럭하면 안 되잖아. 이럭해야 되잖아.' 하고 다스리는 선장이 있단 얘깁니다. 그렇게 선장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을 내니까 육신은 덩달아 따라서 움죽거려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말 저 말이 들어가면 산란해서 공부를 못 해요. 진짜 공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경(經)을 덮은 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을 덮은 겁니다. 자꾸 이 말 저 말을 해서, 이리로도 갈 수 없고 저리로도 갈 수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들이고 내는 데는 오직 내면세계 바로 그 한 구멍밖에는 없다. 빗장 없는 빗장을 쥐고 늘어져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생각이면 그냥 윤회에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일체가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윤회라는 것에도 매이지 말자.' 하고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해서 놓는다면 몇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깨닫는 데 지름길이며, 또 업식을 다 무효화시키는 데 지름길이며, 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지름길이며, 나를 건강하게 하는 데도 지름길이며, 모든 것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하십시오. 내가 열 마디 백 마디 해 봤자 여러분이 생각 한 번 잘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끌어 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차원이 같아야 됩니다. 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이끌어 주려고 하는 마음과 동일해야만이 바로 한자리 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억겁을 통해서 바로 인연이 된 것입니다. (컵을 가리키시며) 이것이 컵이 아니었더라면 물을 담지 않을 것인데, 컵이 됐기 때문에 물을 담는 것입니다. 요것이 인연입니다. 매사에 정말, 조금도 틀림없이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누가 만드느냐. 즉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인연을 만드는데,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좋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죠.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매양 나쁜 걸로만 아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매양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꾸자꾸 마음을 내 준다면 선한 길로 접어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끌어서 건져라, 이런 말이죠. 이 모두가 사람사람이 인연에 따라서, 차분하고 너그럽고 지혜롭고 자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좋게 전부 한마음이 돼 주고, 악하게 마음을 쓰면 악한 사람으로서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오고 감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차안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마음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자꾸자꾸 바뀌진다구요. 사람이 사람으로만 있지 않고 짐승이 짐승으로만 있지 않는다구요. 그러니 한 찰나에 살 것을 그렇게 해서 딴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그 습성에 또 매여서 착이 되고 습성이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거북이 물에 가라앉았다가 천 년에 한 번 떠오를 때에 구멍 뚫린 뗏목 하나를 만나서 그 구멍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로 인연이 돼서 만난 것도 수억겁을 거쳐서 된 겁니다. 여러분은 99%나 부처님 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부처님이 될 수 없을까, 있을까.' 이러지 마시구요, '부처님 될 수 있나 없나.' 이걸 따지지 마시고, 그대로 묵묵히 한 발 한 발 걸어가신다면 그대로 부처죠, 뭐. 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질문자1(남) 네, 두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윤회가 분명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저희들 현재 의식에서는 소소영영하게, 큰스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의식을 하는데, 지나간 전생 일은 현재에서는 하나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도리입니까?

큰스님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친 분들은 과거 생을, 즉 말하자면 무아의 세계를, 이 사바세계와 무아의 세계를 그저 한 찰나에 들고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그냥 넘나드니까 모를 리가 있나요? 삼천 년 전도 알고 삼만 년 전도 알고 삼십만 년 전도 알 텐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른다고만 하지 알려고는 안 합니까' 이겁니다. 그러니 그저 모른다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심안으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안다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넘치게도 하지 말고 너무 안 하지도 말고 그저 차분히 진실로 믿고 내 뿌리에서만이 나올 수 있다 하고는 그냥 자꾸 자꾸 자꾸 지름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질문자1(남)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 질문이라서 좀 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회 사상이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면, 조상과 가족과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경을 읽어 그들을 천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윤회를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인지요?

큰스님 그래서 이 마음공부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면, 캄캄하다면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꺼내도 문제가 되고요, 갖다 넣어도 문제가 되고, 하하하, 가도 와도 전부 걸려요. 또 도와줄 수도 없고요. 나도 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라. 나부터 안다면 전부 가설이 돼 있어서 통하니까 전부 건질 수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공부 하신 분들에 한해서 때로는 꿈에 조상이 보이고 생시에도 조상이 있고 이런 거를 그냥 아시죠.

너무 극성스럽다, 너무 서로 싸운다 이럴 때도 거기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둘이 아닌 주인공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네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모든 걸 놓으면 아주 마음이 태평하게 되고 모두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거 하나뿐이 아니라 좋은 데로 가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병이 없게 하고,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전부 첨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줄 수가 없습니까? 전부 자기와 둘이 아닌데 어째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까?

지금 이 방에 전구가 여러 개죠? 그런데 스위치를 하나 올리니까 불이 다 들어오죠? 또 요거를 몇 개만 켤 수도 있구요. 이건 자유자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자재권을 가졌어요. 그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해서 자유자재하게 끌어 쓸 수가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그 여건을 자재하게 끌어 쓸 수 있으니 마음놀이입니다. 마음으로서 하는 거니 마음으로써 해결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나한테 와서는 요기가 아프고 저 일이 안 되고, 무슨 돈을 줬는데 다 떼이고, 보증을 섰는데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둥 이런 말을 할 때면요, 내가 기가 막힌 거 있죠? 기가 막혀요. '세상에, 어쩌면들 저렇게 관습에 세뇌가 돼서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을까.' 하구요. 아무리 말을 해도 씨가 먹히질 않아요. 능하게 좀 한 발짝을 떼어 놓지를 못해요. 그 어린애가 한 발짝 떼어 놨을 때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너 한 발짝 떼었구나! 너 걸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심정일 거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가난을 면하게 해 주려고 해도 떼어 놓질 않아요.

그러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당신네들이 저질러 놓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결을 못 해? 해결을 못 할 일이면 하질 말지, 애당초에! 아주 줄 생각을 하고 하든지 해야지, 왜 내 집을 잡혀서 담보를 서? 부자지간에도 담보를 설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것도 무슨 까닭인가 하면 욕심이거든.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데서 오는 욕심에 의해서 담보를 잡혀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집을 탕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적게 먹고 편안히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나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죠, 또. 내 몸뚱이가 집이라면 나는 오막살이 토굴이에요. 허허허. 빌딩이나 세련되고 좋은 집이 못 되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 사는 주인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없는 것이지, 집이 크고 좋고 이래서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뭐라고 물었는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하하하. 뭐라고 물었나?

(다음 호에 계속)

> 그 안에 들어서 사는 주인이 어떻게 행하고
>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
> 행복이 있고 없는 것이지
> 집이 크고 좋고 이래서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4년 3월 6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신간!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